충절 상징 '나주향교 충복사 공원' 조성

문화유산 지켜낸 김애남 충절 기려
100주년 맞은 충복사 유허비 재건립

나주시가 정유재란(1597년) 당시 나주향교 문화유산을 지켜낸 충복(忠僕) 김애남의 충절을 기리는 공원을 조성했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향교에서 '충복사 공원 조성 및 충복사유허비 건립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주향교는 조선시대 유학 교육의 중심지로 지역 주민들에게 유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충절 정신을 고양하는 중요한 기관이었다.

특히 전국 234개 향교 중 전국 3대 향교로 조선시대 교육시설 규모를 따지면 성균관 다음으로 지칭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

나주향교 대성전의 수복이었던 김애남은 정유재란 발발 시 왜군이 향교를 없애려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대성전 위패를 등에 업고 금성산으로 피신했으며 난이 끝난 후 위패를 다시 무사히 봉안했다. 조정에서 이 소식을 듣고 김애남의 충절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1799년 충복사(忠僕祠)를 건립해 제사를 지내게 했다.

충복사 유허비(忠僕祠遺墟碑)는 충복사 사우가 무너진 1922년으로부터 2년 후인 1924년 역사적 사실과 유교적 가치를 후대에 전하고자 세워졌다.

지난 3일 나주향교에서 충복사 공원 조성 및 충복사유허비 건립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나주시 제공〉

충복사 터에 민가가 세워지면서 충복사 유허비는 나주향교 영란문 앞으로 옮겨졌다 현재 충복사 터에 다시 세워졌다. 나주시는 지난 2022년 10월 '나주향교 충복사 복원' 사업 계획을 수립, 고증용역과 시굴 조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복원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구를 발견하지 못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복원 불가능'을 통보받았다.

이후 충복사유허비 복설과 공원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사업비 3억2700만원을 투입, 충복사 터로 추정되는 곳의 지장물을 철거하고 충복사유허비를 복설했으며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유교적 전통과 충직한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향교 종합 정비와 동헌터 복원정비 계획을 통해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 2개 업체 전남도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디엑스엠·글리제…재·행정 지원

화순군은 2024년 전남도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으로 ㈜디엑스엠과 ㈜글리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해 고용환경개선 등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한 재정·행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근로자 수 증가와 청년·중장년 근로자 채용률 등 일자리 창출 분야와 고용유지율, 정규직 전환율, 직원 복리후생 등 고용안정 분야 등을 평가했다.

올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고용환경개선자금(기업당 1400만원)과 인증서·인증패 수여, 시설·운전자금 융자 한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지원을 받는다.

㈜디엑스엠과 ㈜글리제는 2024 전남도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에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패를 받을 예정이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강진군보건소 '실버청춘 혈관건강 관리교실'

강진군보건소는 군민의 심뇌혈관질환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실버청춘 혈관건강 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강진군이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실버청춘 혈관건강 관리교실에서 한 군민이 혈압을 측정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부터 총 4회에 걸쳐 24주간 80여명에게 제공됐으며, 고혈압·당뇨 및 심뇌혈관 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혈관 관련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운동을 진행했다.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실습 중심의 저염식 및 균형잡힌 식단 요리, 운동 및 스트레칭 프로그램 등이 진행돼 어르신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강진군보건소는 혈압 측정, 혈당 관리, 총콜레스테롤 측정 등 개별적인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을 통해 참여자들의 건강 관리를 도왔다.

한준호 강진군 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위험 요인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함평군 2025년 노인일자리

18일까지 1870명 참여자 모집

함평군이 2025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활기찬 노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9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보다 30명이 늘어난 총 187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노인공익활동사업(1620명), 노인역량활용사업(190명), 공동체사업단(60명)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역연금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공익활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기회가 더욱 확대됐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다. 선발은 보건복지부의 선발 기준에 따라 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루어진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청 기간 읍·면사무소나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2025년 1월 2일 개별 통보되며, 선발된 어르신들은 함평군 읍·면사무소와 함평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삶의 활력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 문화관광해설사 20명 역량 강화 교육

담양군이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문화관광해설사 2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해설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인 GKL 사회공헌재단과 함께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사운드워킹 청각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 1일 차에는 GKL 사회공헌재단의 사운드워킹 장비 기증식과 장비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이론교육을 진행했으며, 2일 차에는 죽녹원과 한재골에서 사운드워킹 투어를 직접 시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관광지 해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관광 해설에 대해 알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꾸준히 해설 품질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사운드워킹 청각여행은 해설과 함께 관광지의 소리 풍경에 집중하는 생태 교감 여행"이라며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만국의 언어인 자연의 소리로 외국인, 어린이, 관광 약자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여행콘텐츠인 만큼 국내를 넘어 전 세계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성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위법 적발시 가맹점 취소

장성군이 오는 20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거래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분석 후 대상점포를 직접 방문해 상품권 부정유통 여부를 단속 중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유흥업소 등 등록제한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등이다. 특히 고액·반복결제건에 대해 부정수취, 불법환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투명한 지역화폐 유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